

지역 소식통

김제시, 내년 외국인  
외국인계절근로 사전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7일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족과 고용주 1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와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근로자 가족 서류 준비 사항 △질의응답 등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2개월간 실시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수요조사 결과 고용주 66농가 240명, 결혼이민자 가족 325명이 신청하였고, 신청자 중 서류 확인 및 매칭 작업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2월부터 농가에 배치될 계획이다.

김제시에는 현재 37농가 74명의 계절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겨울철 보일러  
긴급안전점검 30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9일부터 동절기를 대비해 겨울철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단독주택 등 보일러 긴급안전점검을 30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가스로 인지가 어려워 소량에 노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효과를 미친다. 특히 겨울철은 가스난로, 가스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인해 화재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김제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지기를 비치하고 자율점검단(동·이장, 자율방재단 등)을 구성해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관내 단독주택 등 2.6만 가구에 대한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이 없는지 육안점검을 실시할 뿐 아니라 마을회관·경로당 방문 화재안전수칙 안내, 공공기관 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방지 홍보물 비치 등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도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내년 본예산 1조430억원

산업성장·민생경제·첨단농업 등에 방점, 재정 효율성 증진 주력... 시의회 제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도 본예산 1조430억원을 편성해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제시가 본예산 1조원 이상을 편성한 것은 처음이자 최초 사례로, '전북권 4대도시'로 응모하는 김제 실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654억원으로 2023년 대비 412억원(4.5%) 늘었고, 특별회계는 84억원(12.1%)이 증가한 779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총 규모는 485억원(5.0%)을 증액하여 편성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973억원으로 2023년에 비해 37억원이 증가했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도 4,472억원으로 332억원이 증가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산업성장도시,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 첨단농업도시 도약 등에 방점을 두고 재정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원 확보를 위해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 91억원, 농공단지활성화 패키지사업 47억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 37억원 등 38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사랑상품권 59억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1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25억원 등 179억원을 편성했다.

대한민국 대표 미래 농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51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21억원, 새만금 청년복합커뮤니티 조성 20억원 등 2,225억원을 반영시켰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 883억원, 생계급여 349억원,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 322억원을 담았고,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시비 포함) 606억원, 전량작물직불금 222억원, 농민공익수당 66

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요촌, 성산, 신중) 69억원, 지역개발 및 배수로개선에 148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2,706억원(28.1%) △농림해양수산 2,322억원(24.1%) △국토 및 지역개발 968억원(10.0%) △환경 575억원(6.0%) △일반공공행정 368억원(3.8%) △문화 및 관광 363억원(3.8%) △교통 및 물류 293억원(3.1%) △산업·중소기업 241억원(2.5%) 등에 배분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여건이 힘든 상황이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주요 시책사업은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사회적약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본예산은 김제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9일 확정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내년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공급업체 공개모집

농축산물·가공식품·관광·서비스·공예품 등  
21일부터 29일까지... 선정시 내년부터 2년간 제공

완주군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20일 완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시에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모집 분야는 △농축산물·가공식품 △관광·서비스 △공예품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이며,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고향사랑팀으로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상품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선정 절차는 공급업체가 답례품을 제안하고, 선정위원회가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함께 평가해 선정하는 방식

으로 이뤄진다.

심사는 지역 자원 선순환, 안전성 등이 중점으로 평가되며, 올해 참여한 기존 답례품 공급업체는 판매실적과 홍보실적 등의 가산점이 주어지게 된다.

군은 12월 중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답례품 선정을 마치고, 2024년 1월부터 답례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를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는 기부자들에게 완주군민의 매력적인 상품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역량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군, 농식품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

내달 11일까지 교육생 모집

완주군이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판매자를 육성한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생방송이란 뜻의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 e-커머스(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판매자(셀러)와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쇼핑을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군은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활용해 판매자 육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군청사 인근 W푸드스튜디오에서 이뤄지며, 농식품 판매경로의 새로운 트렌드인 라이브커머스를 주제로 △라이브커머스 및 라이브 플랫폼 이해하기 △방송장비 사용방법 및 활용법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기법

및 편집 앱 소개 △실전 라이브 방송 판매 등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이해와 실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1부 기본과정, 2부 심화과정은 11일부터 15일까지 각 5회씩 총 10회 진행된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매회 4시간이다.

촬영장비 및 라이브커머스 활용에 관심이 있는 완주군민 중 농산물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우수 농식품기업 또는 창업(예정)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2월 11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 '환경과 건강' 아이들이 원하는 특별 메시지

완주 아동권리영화제 성료  
경이게고 '핑크 팩토리' 대상



제6회 완주군 아동권리영화제가 아이들이 바라는 특별한 메시지 '환경과 건강'을 주제로 삼레문화예술촌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6회 완주군 아동권리영화제가 아이들이 바라는 특별한 메시지 '환경과 건강'을 주제로 삼레문화예술촌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영화제에는 총 45팀이 영화를 출품했다.

이 중 11팀의 영화가 초청작으로 선정돼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됐다.

곽효민 (사)문화콘텐츠연구소 시네숲 대표의 사회로 아동권리영화 상영, 아동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후에는 심우일(영화평론가), 김세익(문화콘텐츠 평론가) 심사위원의 영화제 총평과 시상식이 이뤄졌다.

대상에는 '핑크 팩토리'를 제작한 경이게고의 안희지·지연우·최예나 감독이 수상한 영광을 안았다.

핑크 팩토리는 열음을 만드는 회사 이글루의 폐업으로 곤경에 처한 핑크가족의 이야기로 아빠 핑크이 밤을 틈타 공장으로 몰래 들어가 일을 하는 이야기이다.

최우수상은 '환상통'을 제작한 송남

장향고의 김가람 감독과 우수상에는 '나비효과'를 제작한 완주 한별고의 배초린 감독이 수상했다.

'환상통'은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 주인공이 집 안에 찾아온 한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려 바람이 많은 곳으로 향하는 이야기이다.

'나비효과'는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제대로 가지 않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별상에는 '과자공주'(무주 적상중, 조수아 감독), '무지개'(완주 삼우중, 김현중 감독), '일상'(완주 삼우중, 김정은 감독), '하지 말아야 할 것들'(완

주 가천초, 남궁민 감독), (완주 한별고, 배슬비 감독), '핵오염수 전 세계 바다로 퍼지다'(완주 봉서중, 이하람 감독), '우울의 형상'(남원 국악예술고, 김예린 감독), '방과후 1교시'(경기 한국애니고, 이가은·김서연·박서영·이서진 감독)가 수상했다.

올해로 제6회를 맞는 아동권리영화제는 완주군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를 영화로 제작하는 군의 특화사업이다. 이번 영화제는 문화콘텐츠연구소 시네숲이 주최·주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지역자활센터, 22-24일 '꿈나무들의 행복여행'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석규)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 김제지역 5개 로타리클럽(김제, 만경, 성산, 지평선, 단야)협의회(회장 이춘성)의 후원으로 김제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꿈나무들의 행복여행'을 진행한다.

'꿈나무들의 행복여행'은 김제지역 내 한부모이며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27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2~24일 제주도 일대를 여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평소 여러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여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김제지역 5개 로타리클럽협의회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장애인 및 독거노인, 수급자,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사랑의 쌀 나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